

전남교육청, 다문화친화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이어 지역 유관기관 확대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감수성의 증진 위해 담당자 역량 강조



전남도교육청이 전남 다문화학생 1만 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다문화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축한데 이어 1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2019 전남 다문화교육 지원 유관기관 확대 네트워크 협의회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와 전남도내 22개 시·군청, 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지원청, 전남다

문화교육지원센터(전라남도국제교육원), 도교육청 등 다문화교육 지원 유관기관 업무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 다문화교육 지원의 유기적 협력 체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협의회에서 각 유관기관들은 다문화교육의 공동 주체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다졌다.

협의회에 앞서 공존플랜 김재우 책임연구원은 다문화감수성의 이해와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별 업무 담당자의 역량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진 분임별 토의장에서는 기관별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협업 체계 활성화를 다짐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전남 다문화교육 지원 네트워크는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교와 유관기관을 연결해 학교 다문화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친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덕원 교육복지과장은 "오늘 협의회는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자리로 다문화 학생에게 유관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2020년에도 전남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앞서 지난 11월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축한바 있으며, 이번 유관기관 확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문화교육 지원 협력 체계를 더욱 확대,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현재 전남 도내 다문화학생은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모두 포함해 1만 517명으로 1만 명 시대를 돌파했으며, 전체 학생의 4.93%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대비 728명이 늘어난 것으로, 2015년(7,238명)에 비하면 무려 3,279명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

허성은 기자

전남교육청, 2020 '찾아가는 정시상담'

23일 서부, 24일 동부

전남도교육청이 2020 대입 정시 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서부권(문태고등학교), 24일 동부권(순천복성고등학교)에서 2020 정시모집 대비 '찾아가는 정시 상담 스쿨'을 운영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상담 스쿨에서는 고3 수험생(졸업생 포함) 및 학부모들에게 맞춤형 1:1 정시 진학 컨설팅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현장지원단 20여 명이 1:1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또, 정확한 정보 제공과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드림플러스(DreamPlus) 전남형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해 정시 군별 지원 전략과 합격 가능성 예측까지

지 해줌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지난 17일부터 전남진로진학지원 포털(<http://jdream.jne.go.kr>)을 통해 온라인 사전접수로 권역별 선착순 50명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25명 신청을 받아 상담이 실시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수능 성적표를 소지하고 상담기록부를 작성한 후 1:1 정시 상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위경종 교육과정과장은 "전남형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해 맞춤형 진학정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정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전남교육청은 찾아가는 1:1 맞춤형 대입상담 서비스를 더 확대해 공교육 신뢰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진도교육청, '진도 마을학교 공모 설명회'

진도교육청은 지난 17일, 2020년 진도 마을학교 공모 설명회 및 2019년 마을학교 운영결과 컨설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진도지역 마을학교 운영진 및 내년도 마을학교 희망 단계가 참석하고, 각급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교사가 참석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리가 마련되었다.

2020년 진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배움·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학교와 마을이 동반 성장하는 기틀이 되어 줄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공모 설명회를 시작으로, 1월 8일 서류심사 및 9일~10일 현장실사를 통한 면접을 거치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조성용 기자

진도=조성용 기자



순천교육청, '아이키움최적 도시' 홍보

순천교육청은 순천시, 순천플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와 공동주관으로 17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새로운 혁신교육도시 순천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 행사는 총 3부로 나뉘, 1부 행사는 '2020 혁신교육도시 순천 비전 마당'으로 새로운 교육도시로써 순천교육의 방향 및 청소년 도서 출판 과정을 발표했다.

2부 행사는 '2019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으로 순천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성과와 전망

을 공유하고, 마을학교들의 활동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3부 행사는 '학교와 마을을 잇다'로 혁신학교와 연계한 마을학교들의 마을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안내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사례 부스 및 교육체험 부스를 마련해 참가한 교직원과 마을활동가들에게 2020 마을교육계획을 구상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다.

순천교육청과 순천시, 플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과 함께 하는 순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성과와 전망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보성교육청은 17일 보성공공도서관에서 동아리 회원 32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학습동아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보성교육청은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학습모임을 활성화해 지방공무원 및 교무행정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소통의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학교공간재구성(이관한공간동아리) ▲청렴·조직문화 활성화(청심환동아리) ▲교무행정사와 함께하

는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오로라동아리) 등 총 3개 학습동아리를 운영되었다.

일 년간의 학습동아리 운영을 심사한 결과, 청렴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통해 청렴습관을 실천한 청심환동아리를 최우수동아리로, 자이존증감 향상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오로라동아리를 우수동아리로 선정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보성=안구일 기자

광주교육연수원, 교원 원격연수 개발

2020년 전국 공유 예정

광주시교육연수원이 교원 역량강화 원격연수 3종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원격연수는 '만주·연해주 독립의 현장을 가다', '살이 머무는 학교 공간 만들기', '마을교육 공동체에 눈뜨다' 3종이며 콘텐츠별 15차시로 구성된 총 45차시 연수다.

교원 역량강화 원격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개발 착수에 들어간 이후 내용전문가, 검토위원, 개발자, 시범운영진들의 협업으로 3종 원격연수가 완성됐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연수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학습자 수요를 반영했다.

'만주·연해주 독립의 현장을 가다'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 개척리, 신한촌, 우수리스크, 용정, 명동촌, 연해주, 하얼빈, 뤼순감옥 등 독립운동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촬영하고 전문가 설명을 더해 콘텐츠들을 제작했다.

'살이 머무는 학교 공간 만들기 연수는 삶의 배움터인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의 성찰을 바탕으로 어룡초, 광주봉주초, 광주백운초, 문흥초, 광산중, 광주지동화설비공업고, 서강고 등의 학교공간 사례를 제시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눈뜨다'는 광주형 마을교육공동체의 태도와 흐름, 학생중심형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개발된 콘텐츠는 2020년 1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내용심사를 거친 후 2020학년도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로 개설될 예정이다. 17개 시·도 교육연수원에도 공유될 예정이다.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는데 콘텐츠가 개발되어 뿌듯하고 앞으로 다양한 정책에 관한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